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박영수 특검의 인기가 뜨겁다. 주말과 설 연휴를 가리지 않고 일하는 성실성도 국민을 감동시켰지만, 이재용 부회장에 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저돌성은 역대 어떤 검찰에서도 보기 힘든 덕목이었다. 게다가 모든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김기춘과 장황한 동문서답으로 보는 이들의 열광을 오히려 조운선을 구속시키는 치밀함도 갖췄으니, 이런 특검을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공공증이 생긴다. 도대체 이들은 어디서 뭘 하다 갑자기 나타났을까? 특검을 맡은 박영수를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은 경력이 뜬다. 서울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대통령 민정수석 사정비서관, 대검 중수

특검과 검사의 차이점

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요직이란 요직은 다 거쳤다. 이런 질문을 해 보자. 1999년부터 10년간, 즉 이 분이 검찰의 핵심 요직에 있던 그 시기 검찰의 신뢰는 어땠는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특검이 받는 환호의 100분의 1도 받지 못했던 것 같다. 그 시기 검사들은, 지금 검사들이 그러는 것처럼,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의 실세계에 한 없이 약했고,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들에게는 순한 양처럼 굴었다.

그랬던 그들이 특검으로 발탁되자 갑자기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는 건 무슨 연유일까? 추측컨대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 우리나라에선 대통령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임명한다. 높은 곳에 오르도록 검사라면 청와대의 뜻을 거스르기 힘들다. 그리고 우병우처럼 능력 있는 검사가 청와대에 들어가 검찰 수사에 간섭한다. 설령 검사에게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다 해도 제대로 수사하기가 쉽지 않다.

제목은 다르다. 박영수 특검은 2월 말까지로 예정된 임기가 끝나면 다시 본업인 변호사로 복귀한다. 대통령에게 잘 보

여 봤자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특검이 일을 잘하는지 국민의 관심이 높으니, 정치적 고려 없이 인사외의 편의와 특검에 차출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특검은 박수를 받는다.

그 값어치를 하고 있던 하지만, 특검은 매우 비싼 조직이다. 검사 옷을 벗고 다른 일을 하던 분들이니, 특검팀에 차출할 때 그에 걸맞은 월급을 줘야 한다. 사무실 임차료까지 계산하면 12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특검을 위해 쓰는 돈은 25억 원가량이다. 이걸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된다. 아깝지 않은가?

우리가 검사를 뽑아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이유는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다. 검사가 제 역할을 한다면 최순실 게이트는 시작도 하기 전에 뿌리가 뽑혔을 테고, 특검이란 조직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들이 일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인사권을 독립시켜 주면 된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인사권을 검찰 인사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하자는 얘기다. 그리고 청와대에 검사를 파견하

는 약속을 없애면 된다. 일부 그렇지 않은 검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검사는 수사를 잘 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니, 이 정도 제도적 뒷받침만 된다면 신이 나서 일을 할 것이다.

이 쉬운 일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을 자기편으로 만들고 싶은 대통령의 욕심 때문이다. 검찰을 시켜서 자기를 괴롭히는 상대방을 잡아넣는 장면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검찰의 인사권 독립에 찬성하다가, 막상 대통령이 되면 반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현재에 의해 탄핵이 인용된다면 조만간 대통령 선거가 열릴 것이다. 각 후보마다 화려한 공약을 내세우겠지만,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바로 검찰의 인사권을 법으로 보장하는지 여부다. 물론 대통령이 된 뒤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 공약에 다음과 같은 사항도 집어넣어야 한다.

취임 후 1년 내에 인사권 독립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물러나겠다고 말다. 좀 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만 기억하자.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종교칼럼



장현권 서정교회 담임목사

“목사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소수 한 병 사가지고 왔어요. 먹고 잠 잘려고요.”

설날을 며칠 앞두고 세월호 희생자 학생 아빠의 전화 내용이다. 필자는 부활절(2015)과 추석 명절(2016)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첫 번째 편지는 2015년 4월5일 부활 축하카드를 박근혜 대통령이 보낸 것에 대한 답장 형식의 편지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화사한 봄날이 서서러운 꽃 향기 뿜는 우울한 봄입니다. 먼저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없는 안타까움입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전대미문의 국정원이 선거 개입 사건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불법부정으로 당선된 대통령이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부를 수가 없습니다. 지난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축하 카드를 보내 주셨습니다. 놀랄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습니다... 카드를 받고 답장을 해서 보내니

목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불편하더라도 읽어 주십시오.

2014년 4월16일 봄. ‘다녀오겠습니다’ 수학여행 떠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 시간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304명 목숨을 잃었습니다. 승객 대부분 아직 피지도 못한 꽃 같은 단원고 학생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생중계를 지켜봐야 하는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아홉 분은 차가운 바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께서는 잠사가 있던 날 현장에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서면으로 사고 보고를 받은 후 7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7시간 만에 대책본부가 나타나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들니까?’라고 국민 모두를 당황케 하는 질문을 던졌지요. 이후에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 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책임의 시작은 바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입니다. 그리고 실종자(지금은 미수습자라고 부른다) 아홉 분을 가족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봄, 다시 봄. 4월16일이 돌아왔습니다. 드러난 진실이라고 탐욕스러운 권력의 민낯뿐입니다. 박근혜께서 언제든 유가족의 말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직접 입으로 하셨지요. 그런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지난 2014년 5월8일 밤 한 공영방송 보도국장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와 비교할 때 유가족들은 방송사들 항의 방문했지만 문이 꽂혀 있어

어서 청와대로 갔습니다. 자녀 영정사진을 안고 울면서 갔습니다. ‘만나 주세요.’ 유족들은 밤을 꼬박 새지만 새벽이 되도록 응답은 없었습니다. 76일간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풍찬노숙을 해도 유가족을 왜 외면하셨는가요? 청와대에서 시원하게 있을 때 가족들은 그 뜨거운 한여름에 견고 걸었습니다. 따뜻하게 청와대 객실 때 가족들은 한겨울 눈보라 가운데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500km 걸었습니다. 발목이 상하고 물집이 터져 울면서 걸었던 그 시간 박근혜께서는 가족들의 아픈 다리를 생각해 보셨는가요?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받은 서명을 전달하기 위해 삼보일배로 청와대로 갈라고 했지만 경찰이 막았습니다.

국민 600만명의 서명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은 수사권·기소권이 좌절됐지요. 그나마 조사권 보장에 만족하며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박근혜께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도록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가요? 숨긴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이처럼 악마와 같은 시행령을 만들어서 특별법을 왜 무력화시키려고 합니까? 세월호 가족들은 사발음 하며 상복을 입고 하늘의 별이 된 자식의 영정을 들고 다시 거리로 날아 간다고 걸었습니다. 박근혜, 이 세상 어느 나라도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국민들을 이렇게 대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다른 날도 아닌 4월16일 해외순방을 떠나야 하는

가요.

성경을 한 번씩 인용하시는 박근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감중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어두운데서 이르는 것 광명한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마 10 : 26, 27)

박근혜 1년 전 흘렸던 그 눈물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면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세월호 이전과 다른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한 사람의 국민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 수 있는 나라여야 합니다. 추모의 마음을 담아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십시오. 시행령은 철회를 지시하십시오. 이것도 거짓도 못하시면 이미 대통령이 아남을 아시고 청와대에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2015년 4월15일 세월호 참사 하루를 앞두고)

희생자 명단과 함께 편지를 보냈다. 물론 답장은 없었다.

지금 탄핵을 받고 대통령 직무가 중지된 상황이다. 특검수사와 탄핵심판을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보수 인터넷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토로하며 보수 결집을 시도했다. “그동안 진행된 과정을 추적해보면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 세월호 참사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다.

社說

광주시 ‘5·18 진실규명 조직’ 성과 기대된다

광주시가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 규명을 위해 지원단을 꾸렸다. 이로써 5·18 집단 발표 명령자와 군 헬기사격 등 미완으로 남은 ‘5월 진상 규명’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시의 ‘5·18 진실 규명을 위한 지원단’은 오는 6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지원단은 사업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국민 여론 형성 등에 나설 계획이다. 5·18 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도 지원단과 연대해 진실 규명을 차기정부의 중요 과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때맞춰 학계에서도 전일빌딩 헬기 추적을 뒷받침하는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전남대 5·18연구소 김희송 연구교수는 엇그제 공개한 ‘5·18 진상 규명’에서 “계엄군 헬기는 20사 단 병력을 전남도청에 투입하는 임무를 갖고 비행했으며, 이때 공중 사격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사

단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던 부대로, 5·18 당시부터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 학살에 미국의 동의 내지 묵인이 있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방부대다.

이처럼 5월 진상 규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출범하는 ‘5·18 진실규명을 위한 지원단’의 활동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 36년 동안 묻혀 있던 5월의 진실을 추적하는 출발점에 다시 섰기 때문이다. 5·18 집단 발표 명령자 색출, 행방불명자 매장지 확인 등 난제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광주항쟁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세력에 대응하는 것도 과제의 하나다.

하지만 우려 대신 주저나 아권에서도 5·18 진상 규명을 차기 정부의 과제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어 함께 보조를 맞추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원단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비엔날레 지원 축소하는 ‘일몰제’ 재검토를

지난달 조기 퇴임한 박양우(59) 전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가 최근 광주비엔날레의 인터넷에서 정부의 일몰제(국제행사 출연제)는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위상을 살수시키는 격”이라며 격하게 비판해 주목을 끌었다. 박 전 대표는 “선택과 집중 차원이 아닌 모든 국제행사에 일괄적으로 도입하는 일몰제는 수십 년간 쌓아 온 비엔날레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의 일몰제 정책에 따라 광주비엔날레와 부산국제영화제 등 10년 이상(7회) 국외 지원을 받은 국제행사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비엔날레는 2008년부터 일몰제를 도입할 경우 2024년부터 적용 대상이 되지만 기재부는 2001년 이후 부처도 소급 적용해 광주비엔날레를 올해 대상에 포함시켰다.

문제는 이번 기재부의 일몰제가 특보 대상이 되지만 기재부는 2001년 이후 부처도 소급 적용해 광주비엔날레를 올해 대상에 포함시켰다.

문제는 이번 기재부의 일몰제가 특보 대상이 되지만 기재부는 2001년 이후 부처도 소급 적용해 광주비엔날레를 올해 대상에 포함시켰다.

산 낭비를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순수 예술 성격이 강한 문화행사까지 일괄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다. 실제로 광주비엔날레나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점에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막대한 부가가치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몰제 적용에 대해 국비를 내세워 문화예술을 길들이려는 꼼수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광주비엔날레에 출품된 ‘세월호열’ (박근혜 대통령 풍자그림)에 대한 정치적 소송을 이의 학살효과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문제부가 광주시와 사전 논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을 통보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지금까지도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재고하는 게 옳다. 아울러 광주시와 재단도 차체에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갖추 수 있도록 재정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최근 ‘국정 농단 청문회’나 특검에 불려나온 이들을 지켜보노라면 혀를 차게 만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편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해서 서 등을 돌리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은 모두가 예상했던 바다. 물론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반가운 일이지만, 문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모두가 ‘윗선의 지시와 결정에 따라 링은 재판에서 “총통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며 “가장 큰 책임은 모두를 속인 히틀러에게 있다”는 변명을 내놓았다.

유대인 학살을 지휘한 이돌프 아이히만 역시 “내 죄는, 국가와 공무원 선서 등을 돌리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은 나의 복종심을 잘못 사용한 통치자를 고발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히틀러의 최측근 요제프 괴벨스 선전 장관의 여비사였던 브룬힐데 폴젠도 지난날 27일 사망할 때까지 “나는 사

를 뿐”이라며 카메라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때 “그때 그때서는 안 뿜, “그때 그때서는 안 뿜”고 뉘엿뉘 바라만

그런데 당시 뉘른베르크 법정은 “진정한 결정이란 주어진 명령을 수행할 때 도전적인 선택을 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선언했다. “나는 몰랐다. 나는 책임이 없다”는 변명을 일축한 것이다.

관리에 의무가 따르듯 결정에는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 “나는 몰랐다”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특검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결정과 책임’의 무게를 세상에 드러내 보여 주길 바란다.

/홍행기 사회1부장 redplane@

타자수

성하고 책임을 지려는 이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 높은 자리에서, 결정권도 없이, 허수아비 노릇만 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그러려만 뭐하러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그런 능력으로 어떻게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물어보고 싶을 지경이다.

“나는 모른다”거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핑계는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등장한다. 제2차 세계대전 중 600여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를 심판했던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다. 나치의 2인자였던 헤르만 괴

기 고



김은수 광주대 명예교수

정유년(丁酉年), 닭의 해라고 하는데 아직 닭울음 소리를 듣지 못했다. 도회지에서 살다 보니, 그럴 만한 기회가 전혀 없다. 요즘은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새벽을 알리는 닭이 제대로 울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꺾꽂이하면 조류독감이나 뉘니 해서 가축이나 기를 피지 못하는 게 닭들의 신세가 아닌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더러 시골에서 며칠씩 머물기도 했기에 새벽 닭 울음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그것도 벌써 20여 년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아침에도 그마저 귀담아 두지 않았기에 나의 귓속에 남아 있는 새벽 닭 울음 소리는 순전히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다. 물론 밤에 닭이

계명(鷄鳴)

어떤 모습으로 우는가는 볼 수가 없었다. 다만, 가끔 한낮 나른할 때쯤이면 몸을 고추 세우고, 목은 45도쯤 뒤로 젖힌 채 하늘을 응시하며 장엄한 목소리를 뿜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마 그러한 엄숙하고 의연한 자세가 아닐까 싶다. 그 곳 곳한 대추 같은 위세를 상상해 본다면, 아무리 곤한 새벽잠에 빠져들더라도 벌떡 일어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시경(詩經)의 계(鷄)나라 노래에 계명(鷄鳴)이라는 시가 있다.

“새벽닭이 울었으니, 조정에 대신들이 다 모였겠네요. 그런데, 그건 닭 울음소리 가 아니고, 잠결에 들은 파리 소리였다.” 이른 새벽에 왕비가 방에 날아다니는 파리의 왕령거리는 소리를, 닭울음 소리로 착각하고, 왕을 깨워 조정에 내보내려고 했다는 내용이다. 왕과 왕비가 나라 일에, 노심초사하며 잠자리마저 단락하게 이루어 지 못하는 모습을 그려낸 시작품이다.

‘계명’은 보통 새벽을 여는 닭울음 소리를 뜻한다. 그래서 효명(曉鳴)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이는 문화와 문명을 뜻한다. 이육사의 시, ‘광야’의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울음 소리 들었

으랴’와 같은 것도 같은 의미이다. 닭울음 소리를 듣지 못하고,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다면, 몽매(夢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통사람 한두 명이아 좀 몽매하면 어떻게겠는가. 하지만 어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그러하다면 어두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 그래서 ‘시경’의 ‘계명’에 나오는 제나라 왕과 왕비는 훌륭한 지도자들이다.

나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다. 옛날에는 네댓 명의 형제라도 모두 한방을 썼다. 가족의 구조도 그랬지만 땀감도 여유롭지 않았다. 여름에는 밤이 짧을지라 닭 울음 소리를 듣지 못하고 아침을 맞이하곤 했다. 그러나 겨울밤에는 닭울음 소리를 거의 날마다 들었던 것 같다. 특히 바깥 날씨가 추운 날은 온돌방이 금방 냉물이 되었다. 닭 울음소리에 잠을 깬 것이 아니라, 방구들이 식어서 아랫목을 파고 들다 보면 닭울음 소리가 들리곤 했다.

다시 잠들지 못하고 한참을 뒤척이다 보면 가끔 “자나?” 하는 소리가 들렸다. 형이 나를 깨워보는 소리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자는 체하곤 했다. 형이 무슨 말을 할지 알기 때문이다. ‘요즘 계속해서

자기가 군불을 뿜으니, 내가 나가서 군불을 좀 지피라’고 할 것이다. 밤중에 밖에 나가 찬바람을 마주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몸이 오싹해지는 일이고,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따뜻함을 느끼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그보다 모른 체하고 방안에 누워 있다가, 형이 나가서 댄 군불에서 안전한 따뜻함을 느끼면서 나도 모르게 다시 새벽잠에 빠져드는 것이 행복한 일이었다.

형은 두어 번 내 이름을 부르다가 부엌으로 나가 새벽에 자주 군불을 때주곤 했다. 그 덕에 다른 동생들도 인련한 새벽잠을 잘 수 있었다. 힘을 가지고 말한다면, 또한 사리를 가지고 따진다면 어떻게 형을 이기겠는가. 형은 시리나 논리를 떠나 어른노릇을 했다. 그래서 논리와 논쟁을 넘어서 아름다운 문화를 열어놓은 것이다.

계관(鷄冠)이라고 하는 닭의 뺨은 ‘벼슬’을 뜻하고, 날카로운 발톱은 ‘용맹’을 뜻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닭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계명’에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그없이 새벽을 알려주는 신의(信義),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세상을 열어가는 문명(文明)에 있고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